

채만식(蔡萬植)의 『沈봉사』 4부작 고찰*

임 명 진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안맹(眼盲)의 중층적 의미 |
| 2. 『沈봉사』 4부작의 거리 | 4. 맺음말 |

국문초록

채만식(1902~1950)은 1936년부터 1949년 사이에 『沈봉사』란 제목으로 두 편의 장편소설과 두 편의 희곡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한국의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패로디한 것이다. 본고는 이 『沈봉사』 4부작을 중심으로, 『심청전』이 채만식 문학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그것이 작가 채만식의 주체 확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沈봉사』 4부작 중 장편소설은 잡지에 연재하다 중단되었고, 두 편의 희곡은 각각 7막과 3막으로 완성되었다. 이 희곡들의 대단원에서 개안한 심봉사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눈을 찢러 다시 맹인이 된다. 심봉사가 자해한 원인은 다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딸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 각성으로서의 수오지심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대 단절에 대한 풍자적 표현이다. 전자는 작가의식과 관련이 되고, 후자는 일제강점기·해방기의 사회사와 관련된다.

채만식은 작가로서 주체 형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작품의 주제로 연결시켜 나갔다. 『沈봉사』 4부작은 이런 주체형성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채만식, 『沈봉사』, 『심청전』, 패로디, 비극, 수오지심,
세대 단절, 주체 확립

1. 머리말

채만식 문학에 동·서양 고전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밝혀진 바대로다. 채만식의 고전의 차용은 신소설이나 한국 고전소설에 그치지 않고 서양 작가 푸르케네프, 입센, 발작 등의 작품까지 넓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채만식이 소설뿐만 아니라 희곡·평론·수필 등 장르를 넘어서 문학 전반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든지 일정 정도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든지, 또한 풍부한 어휘와 방언을 두루 차용한 점 등이 푸르케네프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입센의 영향은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채만식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 입센의 『인형의 집』 속편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상관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이 생애 최초의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런 영향 관계가 그의 창작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잖은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만식은 작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고전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그의 역사소설을 제외하고 한국 고전과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텍스트성이 있는 작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장편소설 : 『배비장』(1943), 『沈봉사』(1944)
- 중편소설 : 『허생전』(1946)
- 단편소설 : 『보리방아』(1936), 『동화』(1939), 『홍보씨』(1939), 『병이 낫거든』(1941)
- 7막희곡 : 『沈봉사』(1936)
- 3막희곡 : 『沈봉사』(1947)
- 장편소설 : 『沈봉사』(1949)

이 밖에 전래 설화와 상관되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팔려간 몸』(1933) · 『소복 입은 영혼』(1936) · 『두 순정』(1938) 등을 찾을 수 있어, 채만식 문학과 고전과의 영향관계는 다양하고 광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문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시골서 붉은 딱지 책(傳冊, 또는 신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십 전 짜리의 『춘향전』 · 『심청전』 · 『추월색』 · 『홍길동전』, 따위들)을 읽음으로 해서 소설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탓으로 ... 중략... 내가 오늘날 소설가가 된 것은 붉은 딱지책의 은덕이라 할 것입니다. 즉 붉은 딱지 책은 나에게 있어서 소학교 훈도라 할 수 있지요.¹⁾

이 박계주의 회고에 의하면, 채만식은 소년 시절 일명 ‘딱지본’ 소설을 광범하게 섭렵하였고, 그 스스로도 “幼年 少年 적에는 春香傳, 九雲夢, 秋月色, 長恨夢 등 新舊小說과 三國志, 水湖志, 東漢演義, 西漢演義, 등 안 읽은 게 別로 없고²⁾”라 고백하기도 하였다. 채만식의 소시적 독서가 그의 창작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후에 ‘고전의 패로디’라는 자연스러운 그 소설의 한 줄기 되었던 것이다.³⁾

* 이 논문은 2015년 전북대 연구기반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박계주, 『채만식과 신소설』, 『여원』 1963년 5월호 291-3면 참조.

2) 채만식, 『作家短篇 自敘傳』, 『三千里文學』 1938년 1월호. 256면.

3) 채만식 문학과 전통과의 관련성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① 전통 서사의 문체와 구성의 변용 차원, ② 역사소설에 나타난 시대인식 문체, ③ 고전의 패로디 차원이 그것이다.

위 ①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은 천이두(1973) 이후 방민호(200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일찍이 천이두(1973)에서 판소리의 서술 방식과 문체와의 연관성이 암시적으로 지적되었고, 그 뒤에 김성수(1984), 나병철(1990), 우한용(1991), 임명진(1994), 방민호(2002)에서 그 관련양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 이 결과로 『태평천하』와 『탁류』 등의 문체와 구성이 판소리계 소설의 전통을 적실하게 계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②의 차원에서는 최원식(1982)이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향날』(1937), 『어머니』(1943), 『옥랑사』(1948), 『역사』(1949)로 이어지는 채만식의 역사소설을 “개화기의 역사적 실패 앞에서 결국 분단 시대로 귀결되는 해방 직후사의 실패까지 예견하고 있”(최원식, 1982 : 153)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③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는 신상철(1983), 송현호(1992), 김재용(1999), 방민호(2002), 공종구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채만식이 페로디의 대상으로 가장 주목한 고전소설은 『심청전』과 『홍부전』이다. 『홍부전』의 페로디 양상은 홍부와 놀부의 모티프들이 여러 작품에 산포되어 있어서 그 전모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놀부 모티프를 선명하게 차용하여 성공한 작품으로 대표작 『太平天下』를 꼽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심청전』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작품으로는 7막 희곡 『沈봉사』(1936), 미완성 소설 『沈봉사』(1944), 3막 희곡 『沈봉사』(1947), 그리고 미완 장편소설 『沈봉사』(1949)가 있다. 그 밖에 『심청전』을 모티프로 변용한 작품으로는 소설 『보리방아』·『童話』·『病이 낫거든』 등이 있으며, 이 소설의 화소(話素)들을 빌린 작품으로는 『탁류』 등이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 『沈봉사』 4부작을 중심으로, 고전 『심청전』이 채만식 문학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그것이 작가 채만식의 주체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⁴⁾

2. 『沈봉사』 4부작의 거리

채만식은 생전에 ‘沈봉사’란 제목으로 희곡 두 편과 소설 두 편을 집필하였다. 연대 순으로는 1936년에 발표한 7막 희곡 『沈봉사』(이하 ‘7심’으로 표기), 1944년에 『新世代』에 발표한 미완성 장편소설 『沈봉사』(이하 ‘新심’으로 표기), 1947년에 발표한 3막 희곡 『沈봉사』(이하 ‘3심’으로 표기), 그리고 해방 후 1949년에 『協同』지에 발표한 미완성 장편소설 『沈봉사』

(2014)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성격과 주제도 고전소설의 그것과 상관성을 맺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로 보아 채만식 문학과 전통과의 상관성은 그 형식과 내용 양면에 걸쳐 이제 매우 다양하게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이 글에서 ‘페로디’는 범박하게 ‘기존 작품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질적인 주제나 내용을 삽입하여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Margart A. Rose(1980) 및 Linda Hutcheon(1985) 참조.

(이하 ‘協심’으로 표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新심’은 1944년 『新世代』에 4회 연재되다 중단되었으며, 당시 발표된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약 200매 가량이고, 그 내용은 심학규의 집안 내력, 장님이 된 과정, 심청의 탄생 등이다. 또한 ‘協심’은 1949년 『協同』에 4회 연재되다 중단되었고, 발표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약 250매 정도이며, 그 내용은 심학규의 집안 내력, 장님이 된 과정, 심청의 탄생, 짝씨부인의 죽음, 그리고 심학규의 젓동냥 등이다. 이 두 미완 작품은 전체 줄거리의 앞부분에 치우쳐 있고, 또한 『沈봉사』 4부작의 주제 구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본고의 주요 텍스트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발표된 앞부분에서나마 ‘7심’ 및 ‘3심’의 그것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協심’에 병기된 집필 동기는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7심’은 『沈봉사』 4부작 가운데 가장 분량도 많을뿐더러 원작의 구성과 내용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등장하고, 마지막 대단원 이전까지 전체적 구성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대단원에 이르는 과정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대로 전개되고 있어서 극적 전개도 완만하면서도 큰 굴곡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종막(終幕)은 원작과 매우 다르게 마감된다. 여기에서는 심청이 재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심 봉사의 처지를 공홀히 여긴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궁녀로 하여금 심청 역할을 하도록 꾸미고 심 봉사에게 거짓으로 심청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게 한다. 궁녀 김씨가 심 봉사를 아버지라 부르자 그는 심청의 생환 소식에 기꺼워하다가 눈을 뜨지만 이내 이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진다.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가…… 자세 들으시오. 죽지 않고

沈봉사 : 심청이가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아 있대요?

장승상 부인 : 네 살아 있어요.

沈봉사 : 그러면 그렇지. (벌떡 일어나서 춤을 덩성덩실 추며) 어허 좋다. 그러면 그렇지. 내 딸 심청이가 죽다니 뉘말인가! 호호 좋다. 열씨구 좋다. 심청이가 우리 딸 심청이가 출천대호 내 딸 심청이가 죽대

서야 천도가 무심하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어쩐지 어데 가서 살아 있는 것만 같더라 말이야.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그런데……
장승상 부인 : 그래 그애가 지금 있기는 어데 가 있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장승상 부인 :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에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이 아버지 오셨다.

沈봉사 : 영? (또 한 번 달리 놀라) 영?

궁녀 김씨 :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沈봉사 :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궁녀 김씨 : 어이구머니 송축해라! (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 더니 눈을 떼어요. (전 뒤로 퇴장)

沈봉사 얼떨떨해서 멍하니 섰다가 전후 좌우와 위 아래로 둘러본다.

(특히 관객에게 눈 뜬 것이 보이도록) 장승상 부인과 왕후는 궁녀 김씨가 실패한 것을 당황하다가 심봉사가 눈 뜬 것을 알고 기뻐한다.

장승상 부인 : 어찌면! (심봉사를 들여다보며) 정말 눈을 떴구려! 원 이런 신통한 도리가 다 있을까?

沈봉사 : 내 하도 반가워서 그냥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승상 부인 : 원 어찌면 몽은사 부처님의 영험이 인제야 발현했나 보우. 그것도 심청이가 다 죽은 정성이지요.

沈봉사 : 네? 심청이가 또 죽었어요?

장승상 부인 : 네. 아니 아이구 이걸 어찌나!. 내가 입이 방정이야. 또 아니라 하고 달아났지! 이걸 어찌면 좋습니까?

왕후 : 할 수 없지요. 일희일비라니. 눈 뜬 것이나 다행한 일이니 바른 대로 말해 주시오.

장승상 부인 : 여보 심생원! 그런 게 아니라 심청이는, 정말 심청이는 저 임당수에서……

沈봉사 : 네. 임당수에서? 아니 아까 그건?

장승상 부인 :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이 눈을 뜨니까 질 겁을 해서 달아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심청이는 임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沈봉사 :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각 찌르면서 엎드려진다) 아이구 이놈의 눈구멍! 딸을 잡아 먹은 놈의 눈구멍! 아주 눈 알맹이째 빠져 버려라. (마디 마디 사무치게 호느껴 운다) 아이구우 아이구우.

무대 뒤에서 단소로 시나위를 아주 얇게 분다. 장승상 부인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을 흘린다. 다른 인물들도 추렸이 보고 있다.

沈봉사 :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하수로 걸어간다. 눈은 눈알이 빠져서 아주 움푹 들어가고 피가 흐른다) 아이구 아이구우 아이구우. 가자 가자 아 망녀대로 찾아가야 망녀대로 가자야. (9권 : 100~1쪽)⁵⁾

‘7심’이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심청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과, 심 봉사가 개안(開眼)한 눈을 스스로 찢러 다시 장님이 되는 부분이다. 원작에서 수궁을 거쳐 환생한 심청과 개안한 심학규가 상봉하고, 또 맹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장님들이 함께 눈을 떠서 모두가 해피엔딩에 이르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대단원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작이 가진 불교적 세계관이나 초월적 구조가 투입하지 못한다. 망자는 재생할 수 없다는 근대적 사유, 그리고 결말을 비극적으로 처리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난 셈이다.

‘3심’은 ‘7심’보다 11년 뒤 해방기 때 산출되었다. 그 사이에 ‘新소’를 기획하여 일부 발표하였으나 마감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3심’은 『沈봉사』 4부작의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7심’에 비하면 그 극적 구조가 더욱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 분량상으로는 ‘7심’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구성적 밀도가 높고 사건 전개가 자연스럽다. 심 봉사의 황궁행차라는 거추장스러운 사건을 생략하는 대신 심청·송달·홍녀 사이의 삼각관계를 끼워 넣고, 또 심 봉사의 개안 때까지 심청의 죽음을 감춤으로써 대단원의 반전 처리의 개연성을 높인 것 등이 그 좋은 사례이다.

송달 : 짐짓 가쁘고 긴장한 음성으로) 어르신네!

沈봉사 : 누구냐? 달이나?

송달 : 어르신네, 너무 놀라시지 마시구, 제 말씀 차근히 들으세요.

沈봉사 : 들으나마나, 우리 청이가 죽었는데, 인제야 하늘이 무너지면 더 놀라겠느냐?

송달 : 아네요 저어, 청이가요.

沈봉사 : 청이가, 죽은 청이가, 그래서!

송달 : 죽은 것이 아니라.

5) 채만식, 『채만식 전집 9권』, 창작과비평사. 1987, 99-101면. 앞으로 텍스트의 인용은 (0권 : 000면) 형식으로 표기한다.

沈봉사 : 무어? 아니 죽어?

송달 : 네.

沈봉사 : 너 그게 정말이나? 날 속이느라구 허는 소리 아니냐?

송달 : 아네요. 죽었다고 소문이 나구, 저두 그래서 끝이를 들었드니, 고연한
낭설예요.

沈봉사 : 낭설인 줄은 어떻게 알았드냐?

송달 : 배랑 선인들이랑 돌아온걸요.

沈봉사 : 배랑 선인들이랑? (송달의 팔을 움켜잡으면서) 그럼, 청이는?

송달 : 청이두 오구요.

沈봉사 : 왔어? 어디?

홍녀 : 아버지! (심봉사에게로 달려든다.)

沈봉사 : 오, 내 새끼.

홍녀 : (심봉사의 팔을 잡으면서) 청이가 살아왔어요, 아버지.

沈봉사 :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디보자 내 새끼.

(순간, 심봉사 눈동자의 백태가 벗어지면서, 번쩍 눈을 뜬다)

沈봉사 : 아, 눈이! (부시어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펄쩍 주저앉으면서)

송달 : 뜨셨어요?

沈봉사 : 떴다! 떴다! 살아온 내 새끼, 우리 청이를 보라구. (일어서서 둘러
본다) 어디? 청이 어딴드냐?

송달 : (달려들어 沈봉사를 부여잡고, 눈을 들여다 보면서) 뜨셨군요?

沈봉사 : 떴지!

송달 : 뜨셨습니다!

沈봉사 : 네가 달이드냐? 잘 생겼다. 그러구 우리 청이는? (둘러보다 홍녀를
발견하고, 의심스러이) 네가 청이랑구?

홍녀 : (머뭇거리면서) 저어.

沈봉사 : 음성이 벌써 아닌데? 우리 청이가 이렇게 늙었어? 마마자국이 다
있구, 아니지? 우리 청이 아니지

홍녀 : 아따 그런 게 아니라.

송달 : (가로타고 나서면서) 어르신네!

沈봉사 : 으응? 살아 왔다는 우리 청이는 어디 있느냐?

송달 : 청이의 극진한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의
먼 눈을 뜨시게 허자구, 임당수 계속으루 몸을 팔아 (울면서) 공양미 3
백 석 시주를 헌 그 정성 그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습니
다. 기뻐하세요. 하늘이 무심혈 리가 없지요. 만약, 눈을 못 뜨셨다면
부처님이 야속하지요. 청이는 죽은 혼백이라두 인제는 여한이 없겠습

니다. 어르신네, 그 뜨신 눈으로 이 밝은 광명을 맘껏 보세요.

자, 싫도록 보세요, 그대지두 뜨시구퍼 허시든 눈을 뜨시잖았어요?

칭이가 그대지두 뜨시게 해드리구 싶어 허든 눈을 뜨시잖았어요?

沈봉사 : (허탈되어) 그럼, 그럼, 우리 칭이는 영영 죽구?

송달 : 죽었어두 살었으나 다름없습니다. 만대나 살 효성 아네요?

홍녀 : 지가 대신 따님 노릇 해 드리께요, 네?

沈봉사 : (맹렬히) 영영 죽어? 영영 우리 칭이가 죽어? 이 늙어빠진, 송장
다 된, 아무 소용도 없는 애비 하나 눈 떠주자구, 그래 (광적으로) 우
리 칭이가 죽어? 임당수 제숙으루 공양미 3백 석에 몸을 팔구서, 생주
검을 했어? 응응? 응응? (손가락 두 개를 벌려, 두 눈을 가르키면서)
이 눈구멍 때문에 자식을 죽여? 천하를 주어도 아니 바꿀 내 자식을,
우리 칭이를 생으로 죽여? 응응. (이를 뺏도둑, 가르키던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두 눈동자를 찌른다)

(송달과 홍녀, 놀라 달려들었으나 미급하였고)

沈봉사 : (계속하여) 이 눈구멍 하나 뜨자구? (얼굴이 온통 유혈, 피묻은 눈
동자를 움켜, 태질을 치면서) 이 원수의 눈구멍(땅바닥에 가 쓰러진다)
원수의 눈구멍. (송달과 홍녀 좌우에서 부축해 일으키려 애를 쓰고 급
히 막) (9권 : 194~6쪽)

‘3심’의 대단원도 심청의 죽음을 인정한 심 봉사가 개안한 눈을 스스로 찢
러 다시 맹인이 되는 장면으로 마감된다는 점에서는 ‘7심’의 그것과 별반 다
르지 않다. 그러나 심 봉사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7심’에서는 심청이 심 봉사와 하직할 때 임당수 제
수로 팔려간다는 점을 밝히지만, ‘3심’에서는 남경장사를 따라 갔다가 닉 달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3심’에서 심 봉사는 닉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심청을 기다리며 혹시 그 사이에 변고가 있을까
하여 노심초사하기는 하지만 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다.(뺨뚱어멈에 의해 심청이가 정녕 죽었을 거라는 발고가 있기는 하지
만, 심 봉사는 꼭 돌아오겠노라는 심청이의 말을 믿으려 한다.) 이런 차이는
대단원에서 심 봉사의 ‘자해 행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 즉 심청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낙심하고 한탄
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딸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한 ‘7심’의 심 봉사의

경우와, 딸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은 ‘3심’의 심 봉사 경우에서 그런 거짓의 충격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즉 ‘3심’의 심 봉사가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3심’은 심 봉사의 자해 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하여 고쳐 쓰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3. 안맹(眼盲)의 중층적 의미

채만식은 『沈봉사』 연작을 통해 왜 자해행위의 개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일까? 이 4부작에서 각각 다소 차이는 있지만, 눈을 뜨면 과거에 급제하여 세속적으로 출세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심 봉사의 개안 욕망이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다시 자해하여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방민호는 “근대적 인간의 욕망 타락 퇴폐 파멸의 이미지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2002 : 188), 또는 “자기의 부질없는 욕망에 대한 회한”(2002 : 190)이라는 답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을 주목하면 이를 단순하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금세 간파하게 된다.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 첫째 『沈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커다란 저류(低流)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아니 보이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특히 재래 『심청전』의 전통으로 보아 너무도 대담하게 결막을 지은 것 등에 대해서 필자로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집필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을 말해둔다. (9권 : 101면)

위 인용문은 ‘7심’의 말미에 있는 “附記”이다. 이에 따르면 자해행위로 다시 맹인이 되는 식의 대단원 처리에 대한 해명을 언젠가 하겠다는 것과 그런 방식의 처리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채만식은 전자에 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기’를 통해 채만

식은 심 봉사의 자해행위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協심』의 ‘作者附記’는 주목을 요한다.

----- 전략 -----

舊小説 沈淸傳은 제법 文學이나 藝術이기보다는 한낱 傳說의 서투른 記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는지 모른다. 그 素材만은 넉넉 그리샤 悲劇에 견줄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막상 온전한 悲劇文學이 되지를 못하고 만 것은 여간 섭섭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나는 舊小説 沈淸傳을 줄거리 삼아 『沈봉사』라는 이름으로 人間 沈봉사를 한번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沈淸傳 하나를 꾸며보겠다는 野心이 진작부터 있었고 이번이 그 두 번째의 機會인 것이다.

----- 중략 -----

그러나 이러한 試驗은 나 以外에도 다른 作家에 依하여 앞으로 많이 試驗이 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의 天才인 作家의 손에서 비로소 大悲劇文學 沈淸傳은 完成이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 大悲劇 沈淸傳의 完成의 날을 위하여 土臺에 한 줌의 흙을 보태는 意味 程度로 나는 失敗를 自甘하면서 試驗의 붓을 드는 것이다.⁶⁾

작가의 이런 ‘의미 부여’나 ‘창작 의도’에 접근하는 단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작가의 주체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6) 『協同』 제21호(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9년 3월), 135면.

『協심』은 『蔡萬植 全集』(창작사, 1987)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 작성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1949년 『協同』(조선금융조합연합회 기관지로 1946년에 격월간지로 창간됨) 제21호(1949년 3월)~제24호(1949년 9월)에 4회 연재되다 중단되었다. 중단의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마지막 투고를 했던 1949년 9월 이후 채만식의 지병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고 이로써 집필을 그만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수오지심(羞惡之心)의 윤리적 각성

원작 『심청전』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효(孝)이다. 심청은 아버지 심학규 이전에 한 맹인인 심학규에게 기본적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고 있다. 이런 측은지심은 귀덕어미나 장승상 부인 등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청전』과 『沈봉사』 4부작의 바탕에 광범하게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지단(仁之端)으로서의 측은지심은 원작과 각색을 막론하고 심청 효심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여기에 심청은 심 봉사가 부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는 의지단(義之端)으로서의 수오지심(羞惡之心)과 예지단(禮之端)으로서의 사양지심(辭讓之心)이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보면 심청의 희생적 효는 측은지심과 수오지심과 사양지심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심 봉사의 경우, 어린 심청이를 측은지심으로 길러내기는 하지만, 그 후 자신의 개안 욕망에 흔들려 시비지심(是非之心이) 무너지고 결국 이는 심청을 희생시키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원작과 '7심'에서 자신의 개안욕망에 대해 회오(悔悟)하기는 하지만, 딸의 목숨을 구해낼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는 못한다. 이는 곧 아버로서 수오지심과 사양지심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원작의 경우 심청의 재생과 부귀영화로 대단원에서 이런 부족분이 보충되기는 하지만, 자식의 목숨 값으로 연명하는 그 이전의 과정에서는 부끄러운 아버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작에서 심 봉사는 그런 부끄러움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다. 뽕덕어미의 패덕에 골몰하고 그녀의 출분(出奔)을 애석해하는 그에게서 딸의 죽음에 대한 수오지심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작가가 이런 심 봉사에게 수오지심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로서 딸의 죽음을 부끄러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심 봉사 자신에게 항상 가장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沈봉사 : (독백) 눈을 뜬다? 눈을 떠? ㅎㅎ 근 사십 년 앞을 못 보고 고생 하던 눈을 다시 뜬다. 눈을 뜨고 광명을 다시 본다. ㅎㅎㅎㅎ. 어이 구 인제는 살았다. 우리 어여쁜 심청이도 볼 수 있으려다. 지방처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뜬 눈으로 본단 말이지. ㅎㅎ 가만 있자. 내가 그 해에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려다가 눈병이 나서 못 가고는 영영 눈이 멀었겠다. 음 그러면 눈을 떠가지고 다시 과거를 본단 말이지 과거를 보아서 장원 급제를 해서 귀히 되어 가지고 우리 딸 심청이도 호강을 시켜주고 오웁지 옹지 불쌍하게 죽은 우리 마누라 무덤 앞에 비도 해 세우고. 그리고 이 동리 사람들한테는 모다 제 각기 소원대로 무얼 시켜주어야지. 응응 눈을 뜨게 될거야. (9권 : 59면)

(눈을 떠, 과거를 보아. 급제. 벼슬. 승차. 몸의 영달과 빛나는 가문. 네 대만에 풀리는 유한 지하에서 안심하는 선영 제위……)

이것이 오로지 눈 하나 번쩍 뜨고 못 뜨고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었었다.

사람은 어떠한 원념을 지나치게 그리고 오랫동안을 골몰하였느라면, 어느덧 그것이 신념화(信念化)하는 수가 있는 법이었다. 심학규의 눈 도로 떴으면 하는 원념도 그리하여 이십 년이나 두고

(눈을 제발, 어서 떴으면 제발 어서 떴으면……) 하는 동안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뜨느니라. 쉬이 뜨는 날이 있느니라)

하는 확신=신념이 되고 말았다. 7)

沈봉사 : (신이 나서) ㅎㅎ 눈을 뜬단 말이려다. 눈을, 수십 년 만에 눈으로도 뜬단 말이려다. ㅎㅎ. 번쩍 눈을 떠 광명천지를 다시 보아 ㅎㅎ.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해 벼슬을 해. 늦게나마 영광을 누리. 조상과 가문을 빛내어 ㅎㅎ. (어깨를 들썩들썩) 얼씨구 좋다. ㅎㅎ. 우리 청이가 조음 기뻐하며 마누라두 지하에서나마 오죽 기뻐허리. (9권 : 177면)

(눈을 떠. 과거를 보아 급제……. 벼슬. 승차 또 승차. 영달과 빛나는 가문. 다섯 대만에 비로소 풀리는 유한. 지하에서 비로소 안심코 미소할 선영 제위……)

7) 『新世代』, 1944년 11월호. 25~6면.

이것이 오로지, 눈 하나 번쩍 뜨고 못뜨는데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었다. 사람은 이러한 원념을 지나치게 그리고 오랫동안 두고 골몰하였더라면 어느덧 신념화(信念化)하는 수가 있는 법이었다. 심학규의 눈 도로 떴으면 하는 간절한 원념도 그리하여 이십년이나 두고

(눈을 제발 어서 떴으면…… 제발 어서 떴으면……) 하고 바라는 동안 언제 부터인지 그것이

(눈을 뜨느니라. 수히 눈을 뜨는 날이 오느니라) 하는 믿음(信念)으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8)

위 인용문은 차례대로 ‘7심’과 ‘新심’과 ‘3심’과 ‘協심’에서 일부 따온 것인데, 공히 심 봉사의 가장 강한 욕망이 곧 개안(開眼)이고 또 개안의 목표는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沈봉사』 4부작에서 공히 개안 욕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수오지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 심 봉사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심청이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각성 후에 수오지심이 크게 작동하여 개안을 저주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심 봉사의 ‘자해행위’를 외디푸스 신화와 관련시켜 검토할 수도 있다. 채만식이 서양문학과 신화 전반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는 점, 또 다른 작품에서 서양문학과 영항 관계가 발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접근 방식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앞서 이에 관한 검토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를 ‘그리스 신화로부터의 모티프 차용’(윤영옥, 1997 : 143, 방민호, 2002 : 190)이라 해명하였거니와, 이런 해명은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여기에 그런 ‘차용’이 왜 필요했는지, 또 그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 첨가할 필요는 있다.

우선 채만식은 외디푸스의 ‘자해’가 함축하는 충격적 효과에 주목하여 그 모티프를 차용한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자기 눈을 자해하는 것은 자살 못지않은 자기 저주의 효력을 발산한다. 암흑 속에서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저주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채만식도 이런 ‘효력’의 재생산에 착목하여

8) 『協同』, 1949년 3월호, 132~3면.

이를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외디푸스의 ‘자해’와 심 봉사의 그것은 성질이 다르다. 전자가 ‘운명’에 대한 저주의 결과라면, 후자는 윤리적 저주에 가깝기 때문이다. 외디푸스는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의 운명이 저주의 대상이지 그의 인격이 저주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심 봉사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일시적인 개안 욕망으로 딸이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또는 거의 죽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는 일관되게 세속적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런 그의 무의식 저변에는 청의 죽음 값으로 개안을 해야 한다는 욕망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것은 개안의 순간까지 증폭되어 왔다. 하지만 개안으로 그 무의식적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심학규는 전에 없던 윤리적 갈등에 빠져든다. 딸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다는 자각이 그로 하여금 수오지심을 끌어오르도록 자극한 것이다. 결국 그는 윤리적 회한에 침몰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런 ‘자해’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沈봉사』에서 심학규는 두 번에 걸쳐 눈이 멀게 된다. 첫 번째 안맹(眼盲)은 자의와는 무관하면서 운명적인 것이고, 두 번째 안맹은 자의적이면서 윤리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외디푸스의 경우와 대비할 것은 두 번째 안맹이다. 외디푸스의 안맹이 자의적이면서 운명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심학규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외디푸스와 심학규는 공히 자의적으로 자해를 감행하지만, 안맹의 경험이 없는 외디푸스와 수십년간의 경험이 있는 심학규와의 사이에는 그 결행의 자세와 입장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외디푸스로서는 자신에게 닥친 저주스런 운명을 마주칠 수 없어 그걸 외면하려고 안맹을 감행하지만, 심학규로서는 수십 년 간 욕망한 것이 달성되는 순간 수오지심이 끌어오르고 그 원인이 자신의 개안된 눈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제거하여 부끄러움을 잠재우고자 안맹을 감행한 것이다.⁹⁾

9) 하지만 수십 년 간 장애인의 불편과 설움을 몸소 겪어본 심학규가 서슴없이 안맹을 결행한 점은, 그 이전의 심 봉사의 성격에 견주어보면 아무래도 개연성이 충분치 못하다.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개안에 성공한 심학규로서는 이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수십 년간 꿈꾸어오던 세속적 욕망(과거 급제와 부귀영화 등)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인데 아무런 주저 없이 자해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앞에서 『協심』의 ‘作者附記’를 통해 확인한 바, “大悲劇文學의 完成”이라는 창작 의도는 운명적 비극보다는 윤리적 비극을 부각한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심학규의 안맹에 결부된 윤리성은 다소 문제적이다. 거기에는 부녀(父女) 사의의 천륜의 문제와 세대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이다. 원작 『심청전』에서는 심학규와 심청 사이의 천륜을 효의 관점에서 부각하고 있지만, 『沈봉사』에서는 여기에 세대의 문제를 결부시켜 윤리성에 사회적 맥락을 보장한다.

3.2. 세대 단절에 대한 신랄한 부정

채만식 문학에서 기성세대와 후속세대, 또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탁류』, 『태평천하』, 『제향날』, 「소년은 자란다」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과도기」, 『어머니』, 『당랑의 전설』, 『아름다운 새벽』 등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다. 또한 『옥랑사』, 「홍보씨」, 「역사」 등에도 세대 문제는 주요 내용으로 등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沈봉사』 4부작의 안맹(眼盲) 모티프도 세대 문제를 패로디 형식으로 접근하고자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세대 문제가 여러 작품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는 조선적 정체성이 세대간에 계승되는가 단절되는가 하는 양면으로 대별된다. 계승의 가능성을 암시적이거나 계시적으로 열어놓은 경우는 「레디메이드 인생」, 『제향날』, 「소년은 자란다」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작품에서는 세대간의 단절이나 구세대의 몰락이 선명하게 등장한다. 이 점을 가장 전범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채만식의 대표작 『太平天下』이다. 여기에는 제1세대와 제2·3세

그렇다면 이런 조급한 결막처리는 극작술 차원에서 지적될 만한 문제일 수도 있다.

대와의 단절이 자본의 불균형과 이념의 간극을 통해 심각하게 부각되어 있다. 윤직원의 아들이나 손자 중 희망적 전망을 보여주는 인물은 없다.¹⁰⁾ 『치숙』의 ‘나’도, 『탁류』에서의 정주사의 자녀들도, 『당랑의 전설』에서의 세 아들들도, 그리고 『옥랑사』의 ‘불명’도 모두 세대계승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품에 따라서는 ‘계승 가능성’과 ‘계승 불가능성’이 혼재/혼성된 경우도 있다. 『레디메이드 인생』과 『낙조』가 그러하고, 또 『탁류』의 제2세대들이 또한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채만식 문학에서 세대 문제는 계승과 단절이 착종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서도 세대 계승은 암시적이거나 계시적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세대 단절’은 매우 선명하게 제시되거나 매우 신랄한 풍자의 대상으로 부각한다는 점에서, 작가 채만식은 궁극적으로 ‘세대단절’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도 비약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沈봉사』 4부작에서는 어떠한가? 원작과 달리 심청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곧 세대단절의 강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채만식이 여타 작품에서 늘 강조해마지 않은 ‘세대단절’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또한 자신이 자주 애용했던 신랄한 풍자 방식을 여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했을까?

심학규의 개안을 위해 심청이 죽어 세대단절이 되었으므로, 그가 그 개안을 다시 거부한 것은 곧 세대단절을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 차원에 머물고 만다. 그는 다시 맹인이 됨으로써 수오지심에서 유출되기 시작한 심리적 정화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세대단절이 더욱 공고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원작을 패로디하여 거둔 효과 중의 하나는 물리적 환경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세대단절을 심리적 차원에서 부정하는 신랄함에 있을 것이다.

10) 말미에 윤직원의 둘째 손자 윤중학이 사회주의자로 소개되지만, 그가 당대 식민지 모순에 대항할만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칩의 소생인 태식의 추한 모습에서 윤씨가의 세대단절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수십 년 이상 다량의 작품을 남긴 작가의 세계관이나 그 작품세계를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작품세계가 다양하고, 또 작가의 세계관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만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처럼 그 평가의 진폭이 큰 작가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즉 채만식과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또는 찬사와 비난 사이를 오가며 큰 격차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¹¹⁾

채만식 작품에 나타난 성격·제재·주제 상의 큰 차이를 두고도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작가로서 어느 한 쪽에 안주하거나 몰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항상 상황 인식에 민감한 그로서는 그런 다양한 제재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적 작가로서 독세대중들에게 시대문제를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역사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적잖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만식의 작가의식이나 세계관도 큰

11) 채만식과 그의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 중 그 일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친일작가(임종국), 민족주의자(장양수), 비판적 리얼리스트(이재선, 이선영), 공상적 진보주의자(김윤식), 자기방어적인 현실주의자(황국명), 사회개혁의지의 실천(장성수), 회의적인 역사인식(한형구), 부정의 변증법(이주형), 전통서사의 계승(천이두, 임명진, 김성수, 신상철, 나병철), 허무주의자(정호웅), 탈식민의 전망 획득(송현호, 임명진), 리얼리즘과 리힐리즘의 갈등(최원식), 풍자기법의 확산과 세련화(홍기삼, 구중서, 윤영옥),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과 수립(방민호) 등 이상의 열거 내용만으로도 채만식과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 양상으로 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양극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런 평가의 근거들이 그의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옥랑사』와 『제향날』에서는 민족주의자의 색채를 강하게 피력하였다가 『여인천가』에서는 황도문학의 가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태평천하』에서 신랄한 풍자로 비판적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발휘하다가 『상경만절기』에서는 극심한 허무주의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며,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는 진보적 여성상을 표상하다가, 『아름다운 새벽』에서는 수동적이고 운명적인 여성상을 그리기도 한다.

‘차이’나 ‘격차’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의 이념이나 역사성을 파악하기도 난망하다. 여기에서 작가 채만식이 일제강점기나 해방기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채만식의 작가적 풍모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는 사소설이나 지식인소설 외에 작품 전반에 예의 ‘격차’나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곧 그런 단서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¹²⁾

이와 관련,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관통해서 살아온 채만식은 매우 복잡한 작가의식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몰락한 잔반(殘班)의 후예로서의 혼란스런 계급성, 조선적 가치에 대한 동경과 회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 친일전력에 따른 죄의식 등이 그의 작가로서 주체를 세우는 데 끊임 없는 길항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이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실한 작가적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보냈고, 그 결과로 예의 ‘격차’와 ‘차이’가 많은 작품을 산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치는 동안 줄곧 확실하게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작가로서 자기점검으로서의 글쓰기를 시도할 만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沈봉사』 4부작은 작가 채만식에게 이런 자기점검의 결과로 산출되었다고 할만하다. 심 봉사는 작가와는 시대적으로는 몇 세기의 거리가 있지만, 몰락한 잔반(殘班)이라는 점, 가부장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12) 대체로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에 근접한 존재를 작품에 투영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어느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포작가일 수도 있다. 채만식 문학은 다양한 서사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존재 양상도 작품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의 지식인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대체로 작가의 세계에 근접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 논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최현식 : 1999, 또는 방민호 : 2002). 따라서 채만식의 지식인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나 내포작가를 통해 그의 작가의식이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작품군의 서술자나 내포작가는 뚜렷한 주관이나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 「명일」, 「치숙」, 「소망」, 「폐배자의 무덤」, 「냉동어」, 「모색」 등의 서술자나 내포작가는 공통적으로 식민지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응할만한 자기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허무적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점, 세대 전승에 실패했다는 점 등에서 그런 ‘점검 작업’에 잘 부합하였던 것이다.

채만식은 심 봉사가 개안하여 온전한 안목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자신이 줄곧 온전한 안목으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무력한 지식인이었다는 회한, 또 해방을 맞았지만 자신에게나 민족의 앞날에 명일(明日)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안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 이런 비극적 세계관이 곧 심 봉사의 눈(안목)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공종구, 「채만식의 《심봉사》 계열체 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55호, 현대소설학회, 2014.
- 김성수,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김재용,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사, 2002.
- 변화영, 「인물 패로디와 서사구조」, 국어문학회 편, 『채만식 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1997.
- 송현호, 「채만식의 탈식민적 경향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관악어문학회, 1992.
- 신상철, 「놀부의 현대적 수용과 그 변용」,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 우찬제, 「현대 장편소설의 욕망시학적 연구 - 주체의 성격에 따른 욕망현시 유형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우한용, 「채만식 소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 유화수, 「채만식 소설 연구 - 서사전통과의 연계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윤영옥, 「채만식 풍자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이경훈, 「근대 주체의 좌절과 초극」,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 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 임명진, 「한국근대소설에 있어서의 ‘유희’에 관한 연구(1) -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8집, 1994.

- 정호웅,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 주체의 문제」, 『외국문학』 18호, 1989.
- 천이두, 「프로메테우스의 언어들 - 채만식의 문장」, 『문학사상』, 1973. 12월호, 1973.
- 최원식, 「채만식의 고전소설 패로디에 대하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 최현식, 「문학가의 이상과 생활인의 비애」,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 Linda Hutcheon, 김상구·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85.
- Margart A. Rose, “Parody : Difining Parody”, *Southern Review* vol.X III. no. 1, 1980

【Abstracts】

A Study on the Four *The Blind Shim*(沈봉사)
of Chae Man-shik

Lim Moun-jin

Chae, Man-shik (1902-1950), from 1936 until 1949, wrote four *The Blind Shim*(沈봉사), two novels and two dramas. These works parodied A Korean classic, *Life of Shim-Chung*(심청전).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how the four *The Blind Shim* accommodated the classic novel, and to search author Chae's subjectivity establishment.

Two novels were serialized in magazines and were suspended, two dramas were completed just as 7 acts and 3 acts. In the denouement of these dramas, 'The Blind Shim' restored eyesight. But he poked in his eye with his fingers himself, and again back to the blind. The causes of 'himself-harm' are following two : one is an ethical shamefulfulness(羞惡之心) from the daughter's sacrifice, the other is an expression of irony for a generational disconnection. The former is related to the author-consciousness, and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social history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Korea.

Chae, Man-shik had a lot of interest in the subjectivity establishment, and as a writer he wrote the works dealing with it. The four *The Blind Shim* reveals the most bitterly the severity of the problem.

Key words : Chae Man-shik, *The Blind Shim*(沈봉사), *Life of*

Shim-Chung(심청전), parody, ethical shamefulness,
generational disconnection, subjectivity establishment

이 논문은 2016년 2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